

思想改革論

[學之光] 제3권 1호 (총5호 1915년 5월 2일)

思想은 生活의 標準이니 萬一 吾人으로 하여금 過去의 思想을 是認하며 現在의 生活에 滿足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慣習의 權威를 打破하며 遺德의 奴隸를 解放하여 眞生命의 領地를 展開하며 新生活의 源泉을 啓發코자 할진대 第一 要緊하고 急切한 問題는 思想界革命이라 하노니 荒頹한 基礎에는 華麗한 樓閣을 建築키 難하며 汚穢된 牆壁에는 燦爛한 彩畫를 添加키 不能하도다. 是以로 新時代에는 新生活을 要求하고 新生活은 新思想에 胚胎되나니 換言하면 倉의 富가 社會發展의 標準이 아니며 兵甲의 銳가 民族保護의 機械가 아니라 다만 隱微한 思想의 線路가 隆替의 運命을 支配하며 文野의 區別을 判定함은 人事界의 一大 原則이요 歷史上에 明瞭한 事實이라. 爾今에도 闊袖曲學이 上古戀慕에 繫戀이 尙存하고 高襟新派는 邊幅修飾에 餘醉가 未醒하니 散漫한 思索은 時代風潮와 合流할 수 없으며 衰頹한 想華는 文明理想에 共鳴되기 難하도다. 於是에 暗淡한 地獄이 現世에 來臨하고 窮極한 慘劇이 到處에 演出됨은 目下의 實況이라. 이 어찌 危急의 機가 아니며 存亡의 秋가 아니리오. 이에 林隱의 譏와 井觀의 嘲를 不拘하고 暗黑面과 寂寞界를 向하여 一筆로 論究코자 한다.

第一, 孔敎打破와 國粹發揮

孔敎는 打破될 時代도 到來하였거니와 打破도 하여야 하겠도다. 勿論 孔丘氏는 偉人 傳中의 一人이라 氏의 事蹟을 參考할 必要가 自在하며 敬愛할 感情도 不無하도다. 然하나 吾人은 沐冠 가 아니라 自己의 處地를 沒却하고 그 言行을 模倣할 수 없으며 吾人은 蓄音機가 아니라 時代의 利害를 不拘하고, 그 思想을 傳播하기 難하도다. 換言하면 四億萬族의 血肉系統이 吾人과 連鎖가 無하며 二千年前의 思想權威가 現代를 支配키 難하도다. 茲에 概論하면 孔敎는 慕古思想의 源泉이니 祖述堯舜하고 憲章文武가 孔敎가 中樞思想이라 於是에 土階三等과 茅茨不의 半蠻生活을 讚美하며 禮儀三百과 威儀三千의 牧畜道德을 準繩하게 되니 社會는 停滯하여 發展의 希望이 杜塞되고 民氣는 鎖索하여 進取의 氣象이 缺乏한지라 是以로 無窮한 眞理를 闡明하며

無限한 幸福을 增加케 하는 人文進歩의 原理에 背馳될지며 孔敎는 專制思想의 端緒니 民은 可使由之요 不可使以知之라는 論法으로 賢者政治를 唱導하니 吾人 人類가 政治的 動物이 되는 原理에 背馳될 뿐아니라 이른바 賢者가 代代 繼承될 理由도 萬無하도다. 於是에 治日이 極小하고 亂日이 恒多하여 社會가 塗炭의 坑을 幻成하고 人民이 覺醒의 機가 絶乏됨은 東西歷史의 一一示明하는 바라. 是以로 民主思想이 澎漲하여 自治權利의 平等政治를 實現하는 現代潮流에 不適할지며 孔敎는 排他思想의 表現이니 外族은 蠻夷로 待遇하며 他學은 異端으로 看做하여 獨斷論評과 妄大思想으로 部落社會를 幻成하며 暗黑時代를 再現하려 하니 是以로 人類平等의 眞理를 高調하며 思想自由의 特色을 發揮케 하는 文明思想에 反對될지로다. 우리 社會는 孔敎를 輸入한 以後로 處處에 傳染病院 '鄉校'이요, 人人이 食傷患者라, 神嚴한 民族精神은 是로 以하여 破壞되었으며 壯烈한 武勇思想은 是로 以하여 鎖沈되었으며 燦爛한 美術工藝는 是로 以하여 殘滅되었도다. 噫라 一矢를 不拔하며 半箭을 不費하고 幾行文, 數片語로 他族을 害하는 孔氏의 勢力도 惡極하려니와 우리 民族의 中毒된 程度도 窮極하였도다. 然하면 孔敎打破는 自我保護의 正當防衛요 時代要求의 緊急事務라. 是以로 茲에 國粹發揮를 急叫코자 하노니 吾人의 生命은 太白山 檀木下에서 神聖出現하신 大皇祖께서 創造하셨나니 皇組께옵서는 領土家屋을 開創하셨으며 禮樂文物을 制定하셨으며 血肉精靈을 分布하셨으니 吾人의 生命을 集하면 四千年前의 渾全한 一體가 될지요 分布하면 二天萬族의 分派된 支流가 될지로다. 庭間一株樹를 試觀하라. 千枝萬葉의 生命이 一帶莖根에 起源된 者 아닌가. 由來로 蒙被한 恩澤은 泰山이 猶輕하고 密接된 關係는 一髮을 難容이로다. 然하면 吾人이 大皇祖를 崇奉하며 尊祀함은 事光追遠의 至極한 精誠이요 啓後開來의 當然한 義務가 될지며

第二, 家族制의 打破와 個人自立

社會制度는 人文進歩와 時代發展을 隨하여 變遷되며 改革됨은 人事界의 事實이라, 元來 家族制度는 部落社會의 産物이며 專制時代의 餘波니 一은 人文이 未關하고 知識이 幼稚하여 共同生活의 原則을 未解하고 猜忌爭奪의 野心이 劇烈함을 隨하여 族屬을 團結하며 部落을 成立하고 防衛의 道를 謨하며 抵抗의 力을 作함에 起源되고 一은 刑政이 未備하고 法令이 解弛하여 國家의 統治機關이 周密한 警察과 絶對한 權威를 發揮치 못함을 因하여 狡猾한 專制家가 夷族의 法을 制定하고 家族의 制를 利用하여 社會를 拘束하고 地位를 確保코자 함에 發達되었나니 是以로 個人權利가 尊重되고 國家威力이 澎漲한 現代에 對하여는 家族制의 存在를 容認키 難하도다. 茲에

概論하면 家族制는 社會發展에 障害物이 될지니 青年英才로 萬里에 壯志가 有하고 一生의 經論을 抱하여 法律의 制裁를 不拘하며 慣習의 科臼에 超越하여 快舉雄圖의 氣概가 有하여도 活動의 方面과 進行의 經路에 家長의 承諾을 要求하게 되니 偉大한 理想은 凡夫의 理解기 不能하고 危險한 事業은 俗翁의 妨沮되기 容易하도다. 是以로 社會는 進取氣象이 缺乏하고 保守思想이 溢萬될지며 家族制는 懶惰性의 源流가 될지니 一人이 耕之하고 十人이 食之라 함은 家族制의 眞相을 說明한 句語라. 大개 勤勉은 奮鬪에서 生하고 奮鬪는 生活에 基因되나니 青年健骨이 蠢蠢한 寄生蟲으로 化作되고 紅顏幼婦가 無用한 新有物로 幼出되매 財産에 恒心이 無하고 生活이 依賴가 自甚하도다. 是以로 勢殊事異하면 桑海의 變이 斷至될지요 溝壑의 禍가 難免될지며 家族制는 人材擢用에 陷穽이 될지니 門閥을 尊尙하여 貴賤을 判定하며 系統을 是觀하여 班常을 區別하니 於是에 祖先이 顯著하고 族親이 繁昌하면 癩白痴와 酒囊飯袋라도 依例厚待하며 然 仰視하고 門地가 寒微하고 系統이 未詳하면 偉貌健骨과 逸足良材라도 互相排斥하며 然 侮視하니 是以로 社會는 冷酷殘忍하여 和氣가 喪失되고 民族은 支離滅裂하여 怨聲이 漲滿하였도다. 勿論 民族을 爲하여 血肉을 犧牲하며 精靈을 盡 하는 人物에게 對하여 그 勳績을 讚頌하며 敬慕함은 社會의 義務며 因果의 報應이라. 그러나 後裔近族이 遺風을 誇張하며 白骨을 利用하여 投機的으로 漁功을 坐收하며 無條件으로 門閥을 樹立함은 社會가 決斷코 容認기 難할 뿐 아니라 어찌 先哲에 對한 累及이 아니며 後進에 關한 恥辱이 아니리오. 噫라 王侯將相이 元來 種字가 無하며 偉功勳名이 特別한 限界가 無하나니 疾足者 先得이오 熱心家 所有됨은 自然界의 形勢요 歷史上의 徵舉하는 바로다. 試觀하라. 家族制의 胎毒이 如何하며 社會界에 被損이 如何한가. 勿論 皮相의 觀과 近視의 眼으로 批評하면 家族制度는 骨肉連鎖의 機關이며 愛情發露의 結果라 할지나 吾人으로 하여금 眞正한 骨肉連鎖의 必要를 感覺할진대 二千萬族의 精力을 團合할지요, 純潔한 愛情發露의 精誠을 披瀝코자 할진대 四千年來의 歷史를 光輝케 할지로다. 何者로 吾人의 肉體에는 同一한 檀君血液이 循環되며 吾人의 頭腦에는 同一한 權域思想이 留宿되며 吾人의 活動에는 密接한 利害問題가 關係됨이로다. 腐敗한 制度和 偏狹한 觀念은 門戶를 對立하여 賢能을 害케 하였으며 私利에 熱烈하여 公事에 冷淡케 하였으며 家譜는 重視하되 歷史는 無視케 하였으며 私墳은 修築하되 宗祠는 荒蕪케 하였으며 閥松은 長養하되 公山은 禿케 하였도다. 然하면 家族打破는 大和樂을 挽回하는 張本이며 大發展을 要求하는 所以라. 是以로 茲에 個人의 自立을 切叫하노니 支人 張某의 九世 同居를 美事로 稱道하며 好例로 看做하나 此는 主觀이 아니오 客觀이며 實質이 아니오 形式이니 그 經過狀態는 忍字의 百으로 說明되었나니 到此에 裏面의 衝突과 内幕의 苦痛을 想像할지로다. 然하면 不和를 引致하며 苦痛을 忍耐하여 九世를 同居하는 것보다 一

時에 別居하여 和平을 共樂하며 幸福을 相增하는 것이 智者의 能事요 達人의 觀察이라. 是以로 複雜한 親等を 減縮하여 負擔을 輕損하며 獨立의 生活을 完成하여 自由로 發展케 할지니 換言하면 個人은 家族線을 經由하여 社會에 到着할 것이 아니라 直線으로 社會를 貫通하게 할 것이니 如此하면 萬里獨治하여도 家政의 顧가 無하여 事業을 完就할 지요 一力直進하여도 交老의 阻가 無하여 社會가 發展될지라도. 噫라 家族을 周圍하여 固着된 重農主義는 過去에 歸屬하였고 個人을 中心하여 流動하는 通商時代는 現在에 到來하였으며

第三, 强制戀愛의 打破와 自由戀愛의 鼓吹

戀愛는 至誠이며 事實이니 人生 一代에 苦樂의 源泉이요 社會 萬般에 盛衰의 關鍵이라. 이 어찌 靜思沈究하며 重視詳論할 大問題가 아니리오. 由來로 不告而娶는 成人之戒라 하여 垢堆積하고 荒唐無稽한 一片空文으로 青年男女의 肉體自由를 束縛하며 人類社會의 愛情發露를 塞源하여 萬端苦痛을 招致하며 一般風化를 損傷케 하나니 概論하면 强制戀愛는 階級結婚의 惡果를 發生케 하나니 青年男女가 心契가 相合하며 情愛가 殊切하여 夢中에 人이 되고 相思의 病이 될지라도 貴賤이 不適하고 貧富가 不均하면 家親의 不許와 慣習의 制裁를 因하여 巫山佳約을 虛負케 하나니 是以로 精力과 血液이 一定한 族屬에 循環不通하여 生理上에 不良한 兆徵이 胚胎될지며 强制戀愛는 早婚의 末弊를 發生케 하나니 鄉黨父老와 村閭老婆가 身後의 種을 豫慮하며 眼前의 花를 玩樂코자 하여 幼子稚女를 載車負馬하고 華燭의 典을 舉行하게 되니 知覺은 尙早하고 骨格이 未成한지라, 往往히 白地健兒는 黃泉의 客을 作하고 青春孀婦가 素縞의 服을 裝하니 於是에 愁雲이 漠漠하고 冷風이 蕭瑟하는 人生悲劇이 演出될지며 强制戀愛는 作妾의 惡習을 招致케 하나니 夢寐에 不見하고 鬼神도 未知하는 人事間에 一片의 紙와 數匹의 帛으로 百年을 期約하니 鴛鴦의 樂과 琴瑟의 和를 得한 者 辰星이며 僥倖이라. 性格의 異同이 水油의 關係요 或은 容貌의 醜美가 玉石의 差別이 生하니 男男이 君子人이 아니며 事事에 道德家가 아니라 於是에 心神의 慰安과 戀愛의 快樂을 別途로 求하니 是以로 芳年紅頰이 破鏡의 身勢를 自歎하고 春閨 青春은 薄命의 長恨을 泣訴하는도다. 百樂天의 詩에 '後世莫作女子身, 一生苦樂由他人'이란 一句는 어찌 强制戀愛의 黑幕一面을 畫出한 者 아니리오. 由此觀之 今代 强制戀愛는 弊毒이 窮天極地로다. 不自然한 早婚의 弊風은 人世의 悲哀를 化成케 하였으며 非人道된 作妾의 惡例는 婦女의 怨恨을 發生케 하였으며 沒常識한 階級の 結婚은 生理의 發達을 妨沮케 하였나니 然하면 强制戀愛를 打破함은 自然的의 眞理

요 人事上의 正路라. 是以로 吾人은 茲에 自由戀愛를 鼓吹코자 하나니 元來 戀愛는 理論이 아니오 情熱이며, 客觀이 아니오 主觀이란 由是로 貧富의 限界가 無하며 貴賤의 階級이 無하며 土地의 遠近이 無하며 知識의 比較가 無하나니 換言하면 萬金의 富가 戀愛를 橫斷할 수 없으며 三軍의 威가 戀愛를 爭奪할 수 없으며 白屋의 貧이 戀愛를 變改할 수 없으며 千里의 遠이 戀愛를 疏隔할 수 없으며 知識의 力이 戀愛를 解剖할 수 없나니 此는 宇宙의 神秘요 人情의 機微라 萬一 食飲을 強效치 못할 進대 戀愛도 強制치 못할지며

第四, 虛榮教育의 打破와 實利教育의 主張

由來로 우리 社會는 官吏萬能과 者一流라는 沃學思想이 青年의 頭腦에 浸染되고 社會의 習慣을 化成하여 十年의 苦讀은 標準이 馬頭의 榮에 在하고 一生의 守道는 目的이 豹皮의 名에 終하니 是以로 全體 事業은 衰頹가 窮極하고 一般 思潮가 虛榮에 浮敗되었도다. 茲에 概論하면 虛榮教育은 勞動虐待의 結果가 生하나니 勞動은 神聖이라 他人의 汗血을 不食하고 自力의 勤勉을 是資하여 運命을 開拓하며 生活을 維持하니 天賦의 能力이오 人生의 要務라, 高壯한 城壁은 礎石이 無하고 特立키 難하며 偉大한 民族은 勞動이 乏하고 雄飛키 難할지며 虛榮教育은 物質研究를 疏略케 하나니 窮思覓得하고 緻密周到치 아니하면 自然界의 法則을 解悟키 難하고 物理上의 變化를 覺得키 不能하나니 是以로 虛榮教育은 規則을 是準하여 腦力을 鍊鍛하며 分業을 是隨하여 能力을 發揮키 難할지며 虛榮教育은 名利의 奴隸가 되나니 生産을 不事하고 澤及萬民을 希望하며 山林에 隱遁하여 名傳千秋를 夢想하니 事業에 階級이 分明하며 窮達이 途程을 要求하매 等하여 到達키 難하며 不勞하고 成就키 不能하나니 是以로 實體를 未解하고 形式을 是主하며 事理를 不拘하고 榮華를 渴望하게 될지라. 勿論 名輩出이 吾人의 希望이오 賢相繼至가 現代의 要求라. 然하나 吾人이 眞正한 政治를 實行코자 할진대 먼저 虛榮的 思潮를 打破할지요 深遠한 學術을 研究코자 할진대 먼저 固陋한 偏見을 打破할지로다. 是以로 茲에 實利教育을 急調코자 하나니 人生이 此世에 來하매 宇宙間 森羅萬象이 一般 研究資料요, 社會上 大小百事가 俱是 活動方面이라. 官吏의 寄生職이 唯一한 目的되기 難하며 者의 釣名業이 高尚한 事實되기 不能하도다. 다만 天意에 適合하고 民生에 必要하면 才能과 職分을 隨하여 心血을 傾盡하며 努力을 極盡케 하는 것이 人類의 義務요 社會의 理想이라. 然하면 煙突事業도 可할지며 肥料生活도 可할지며 珠盤活動도 可할지며 航海研究도 可할지라. 現代는 實利文明이니 英雄은 團體로 幼出되고 政治는 生活로 變形되었도다. 是以로

杜翁은 文豪로되 農園에 投足하고 厚公은 偉傑이로대 工場에 出身되었으며

第五, 常識實業의 打破와 科學實業의 喚興

進歩發展의 使命을 帶한 吾人 人類의 生活狀態는 時代의 變換됨과 人文의 繁昌함을 隨하여 華美하게 되며 精巧하게 되나니 是以로 綿布의 服이 護身의 着이 아니며 茅茨의 屋이 容膝의 處가 아니며 蔬菜의 飯이 充腹의 物이 아니며 連朮의 草가 病治의 藥이 아니 될지로다. 茲에 概論하면 常識實業은 產業의 發達을 沮防케 하나니 物理의 研究가 乏絶하며 機械의 使用을 未究하여 努力만 是賴하고 經驗을 標準하니 完全한 設備와 一定한 準繩이 無한지라. 是以로 到處에 原始의 觀이 有하며 製品에 斧鑿의 痕이 無기 難할지며 常識實業은 外處의 物貨를 招致케 하나니 精拙이 不同하고 遲速이 懸殊하매 同價면 紅裳이오 疾足에 先得이라. 是以로 風雨行商이 地盤을 奪하고 晝夜製工은 職業을 失하여 歐品米貨가 漁貫輻湊하니 經濟界에 鳩居의 患과 狐借의 禍가 繼至하게 될지며 常識實業은 社會信用을 墮落케 하나니 貯蓄의 機關이 未備하고 簿記의 方式이 不明하며 損得의 證據가 未確하고 投機的 事業이 勵行되니 是以로 甲者를 疑하며 乙某를 忌하고 東隣에 得하고 西市에 失하게 되니 太倉紅腐는 活用の 途가 塞하고 寒村白屋은 流通의 路가 能하게 될지로다. 競爭은 生活에 起因되고 生活은 實業에 基礎되나니 吾人이 木石이 아니며 幽靈이 아니라. 食飮치 아니하면 飢渴할지요, 衣着치 아니하면 凍寒할지니 歲入 歲出이 權衡을 失하며 供給需要가 機關이 無하여 天產原料는 他地에 流出되고 人製外品은 到處에 發見하게 되니 이 어찌 生活의 危機가 아니리오. 是以로 茲에 科學實業의 急務를 喚興하노니 現代의 產業은 科學의 發達됨을 因하여 革命되었나니 視觀하라, 鐵線이 縱橫하며 電信이 連絡하여 貨物의 交換을 敏活케 하는 것이 蒸氣電氣의 作用이며 時笛이 四起하고 烟突이 林立하여 製品의 精巧를 窮極케 하는 것이 化學工藝의 發達이며 肥料가 山積하고 山野가 盍蒼하여 林果의 供給을 豐饒케 하는 것이 物質推理의 餘波며 內外를 科分하며 骨節을 解剖하여 生命의 苦痛을 輕減케 하는 것이 生理應用의 結果가 될지니 是以로 科學實業은 學術應用의 活動이며 分業發達의 關鍵이라 消極的으로 土產을 保護하여 自衛의 道를 謀하며 積極的으로 科學을 引用하여 發展의 策을 計劃하는 것이 生活維持의 方便이 될지며 產業發展의 基因이 될지로다.

結論

紙面의 不許함과 境遇의 難用됨을 因하여 結構의 體가 疏略이 多하고 論評의 鋒이 自由를 失하여 管려의 見과 衣上의 感이 不無하도다. 然하나 누구던지 朝鮮民族史를 讀하다가 掩卷長觀할 處는 思想界의 墮落이라 할지니 試觀하라. 社會는 依賴의 風이 彌滿하며 民族은 自立의 道를 不求하여 士林은 孔教를 依賴하며 青年은 老年을 依賴하며 女子는 男丁을 依賴하며 實業은 常識을 依賴하며 教育은 過去를 依賴하며 國內은 海外를 依賴하게 되니 元氣가 沮喪되고 神經이 虛弱하여 風聲鶴唳에 一嘖一笑하고 點兩片雲에 是望是翹하며 投機事業에 耳目을 傾盡하고 僥倖運數에 心神을 馳驅하니 於是에 訛言이 百出하고 群妖가 橫行하는도다. 噫라, 天은 自助하는 者를 助하니 誰某誰某하여도 依賴心을 打破한 以前人이며 曰何曰何하여도 自立力을 確立한 然後事라. 是以로 吾人의 今日은 改革을 要하는 時代며 內省을 求하는 時代라 하노라.